

교회 목표

신앙한 예배
찬양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람

주간 중헌

회개하라 찬구가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중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장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빌립 4:13)

고난 주간(10일~14일) 특별 새벽기도회 성금요일(14일) 금요 집회시, 3차 성찬식 및 특별찬양

오늘(9일)은 종려 주일이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고난 주간은 사순절(Lent)의 마지막 1주간으로 오늘부터 부활 주일 새벽 달을 때가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지상 생활 중 마지막 1주간 즉 최후의 만찬과 겔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체포, 재판, 십자가에 못 박히심, 죽음, 그리고 장사를 포함한 사건들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말했을 때(마 16:21-28, 마 17:22, 23, 마 20:17-19) 처음에 제자들은 당황했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고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에 동참했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 수난 기사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4복음서가 구성되었으며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번 주간에 오직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말없이 발걸음을 옮기었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히 5:8). 이를 위해서 반드시 내일부터 성금요일까지 진행되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금요일에는 금요일 금

식하고 저녁에 있을 금요일집회와 3차 성찬식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발자취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주일학교 찬양대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등 750여 명의 찬양대원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생명의 양식, 거룩한 성)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날은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찬양(거룩한 성)을 함께 드리며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열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계 21:2). 십자가 대속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은총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빌 3:10).

* 성금요일 금요일집회(14일) 주자 안내

중지재정로: 안습수: 제2교목관 지하3·4층 / 일반 성도: 차량안내부의 지시에 따라 주자

* 다음 주일(16일), 부활 주일 및 부활절 특별 찬양 (찬양예배 시)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일집회)

그리스도의 영광

5.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한 그리스도의 권위 (고후 5:14, 15)

바울은 신자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다.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축복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에 대해 신자들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삶이 본분하게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강하게 권고하신다. 그분은 세상의 지식인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가 아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의 충고자 아닌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롬 14:7-9). 경배 드리는 것, 어떠한 행태나 모습이나 인간에게 종교라는 예배의 형식이 있겠는가? 남은 것은 오직 형식적인 예배뿐인 것이다. 외식이고, 거짓이고, 속과 겉이 다른 것 어떠한 것일 뿐이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의 뜻을 우리의 법으로 삼고 그분이 나의 가장 고귀한 보배요 나의 생전의 최종 결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참으로 고귀한 경배가 아니고 무엇인가?

바울은 빌립보를 향하여 로마의 감옥에서 고백한다(빌 1:20,21). 바울 자신의 생과 삶 그리고 끝나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아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아니라라면 우리가 사는 것이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매우 후, 그의 뜻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된 후에, 모든 것이 끝이 되고 가장 높은 최고의 선이 된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남은 것은 오직 형식적인 예배뿐인 것이다. 외식이고, 거짓이고, 속과 겉이 다른 것 어떠한 것일 뿐이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의 뜻을 우리의 법으로 삼고 그분이 나의 가장 고귀한 보배요 나의 생전의 최종 결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참으로 고귀한 경배가 아니고 무엇인가?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고 외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으며 멸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야 4:10,12).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다(요 15:13,14).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제 하실 줄 아노니."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다. 그리스도께 나의 삶이 바쳐지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삶은, 아니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고후 10:4,5).

삶과 죽음은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께만 의지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렇듯 신자는 은혜의 법 아래에 보호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은총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다(고 전 9:22). 은총의 법이 율법의 정죄에 대해 대가를 치루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신만 신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신자들에게 명명한 것이다(마 5:48). 참으로 신자들의 삶은 중요하다.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예메리아는 이 스페인 백성을 향하여 안타깝게 부르짖는다(렘 17:5).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

유다의 설교를 들어 보자(요 11:1-3). 그는 성도들을 향하여 외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즉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신뢰, 즉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거룩한 믿을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하였다(요 20:21). 바울 역시 디모데를 향하여 같은 내용의 메시지로 충고한다(딤후 1:12).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 고백을 하고 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그 심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한다. 저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가증하다. 신이라고 하면서 떠러운 자가 되고 치우친 자가 되었다. 인간들에게 보이려고만 한다(시 14:1-3). 예수께서도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 위에 올 때에 이 땅 위에서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라고 한탄하셨다(눅 18:8).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도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도가 급습이라"며 여호와의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시 21:2).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우리의 삶을 한 번 점검해 보자!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신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라에 앉았으니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계 6:16,17). 성경 구절을 더 찾아보는 대신에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가 있다. 이제 나의 삶은 어떤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는가?

Sermon for Next Sunday |

MARY MAGDALENE'S FAITH

(9) Now after He had risen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He first appeared to Mary Magdalene, from whom He had cast out seven demons. (10) She went and reported to those who had been with Him, while they were mourning and weeping. (11) And when they heard that He was alive, and had been seen by her, they refused to believe it. (Mark 16:9~11)

There is something very special about Mary Magdalene's faith. You cannot ignore it because she was the first person Jesus appeared to after His resurrection, "Now after He had risen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He first appeared to Mary Magdalene, from whom He had cast out seven demons" (v. 9). The gospel of John even describes part of their conversation, "Jesus said to her, 'Woman, why are you weeping? Whom are you seeking?' Supposing Him to be the gardener, she said to Him, 'Sir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tell me where you have laid Him, and I will take Him away.' Jesus said to her, 'Mary!' She turned and said to Him in Hebrew, 'Rabboni!' (Which means, Teacher)" (Jn. 20:15&16). After their encounter, "She went and reported to those who had been with Him, while they were mourning and weeping" (v. 10). She was the first one to proclaim God's wonderful secret. She told His disciples and Peter that she saw Him, but "they refused to believe it" (v. 11).

As Jesus suffered and died on the cross, Mary stayed near Him, "There were also some women looking on from a distance, among whom were Mary Magdalene, and Mary the mother of James the Less and Joses, and Salome" (Mk. 15:40). His disciples fled, but Mary kept close. She even followed His body to His grave, "Mary Magdalene and Mary the mother of Joses were looking on to see where He was laid" (Mk. 15:47), and after the Sabbath, she bought spices to anoint Him (Mk. 16:1). When she found out that Jesus' body was not in His tomb, she did not want to leave. Her deep loyalty and true love for Jesus shined through her actions. Jesus forgave her sins, and healed her of seven demons. His love was real. She followed Him in a special way, the way of faith, because she really loved Him too.

Mary Magdalene was the first to witness the most mysterious event in human history. Nothing before or after it can compare to the wonders that took place between heaven and earth. The human mind cannot explain the resurrection. We are limited to this earth in time, material, and space, but Jesus died and became alive. He made our limited environment unlimited, endless, and eternal. If we join with Him, we too can have eternal life. He frees us from time, space, and material things, which is a precious miracle. It is God's secret! He destroyed death and made available eternity to mortal beings. Jesus sai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Jn. 14:6).

Everyone believed in Jesus' day that He definitely died. Mary Magdalene was the first to witness the miracle of His resurrection. She saw Him alive. She touched Him and talked to Him. She believed in His resurrection. She had faith, hope, and love. These things come from heaven. You cannot obtain them any other way. Human goodness or will cannot produce faith, hope, and love. What the world calls love is not really love. It is just a limited, and therefore worthless, version of reality. Real faith, hope, and love are beyond human will, and come from Jesus Christ alone. No matter how smart or wise one may be, humans cannot figure out on their own God's secret of resurrection. Mary could understand this resurrection because she had faith, hope, and love.

Now a day, the Christian church does a poor job explaining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ir judgments are way off because this miracle concerns heaven and earth, it shows things going from limited to unlimited, from death to life, and you must have faith from heaven in order to understand. You have to hear God's eternal voice. Jesus said, "Truly I say to you, whoever does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child will not enter it at all" (Lk. 18:17).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you must have simple faith, so that you can hear God's eternal voice. If your pride or own will shows, you will not be able to hear Him.

Jesus is alive! He is the risen Savior. I hope this is your faith. I hope this is your praise. I hope this is your whole act of worship. Your faith needs to be deep within your heart. It cannot be superficial. It is not just an Easter Day timeframe. You need faith at all times, so you can see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He is alive! He will live forever and ever.

My dear friend, Good Friday is not just a bad day. When you look at it with faith, it is a wonderful day because Jesus replaced your death with His. Personally, I have had several experiences with death and life, but never have I witnessed someone completely die and come back to life. I have never seen it.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requires that we stand on faith and faith alone. He not only came back to life, but created life eternal for those who believe in Him.

Today is Easter Sunday. It is a day of faith because Jesus is alive. Do you believe it? Our faith needs to be refreshed. We need to recover from getting colder or warmer. Our hearts and will need to be aligned with almighty things. We have to agree with what God shows us, and He shows us His secret. God's secret means He gives eternal life to those who believe in His Son. He gives truth to those with faith. Abraham practiced His faith, but He never received the Promised Land. He lived as a traveler, in tents, not his eternal home, but His heart believed. Hebrews 11:8-12 says, "By faith Abraham, when he was called, obeyed by going out to a place which he was to receive for an inheritance; and he went out, not knowing where he was going. By faith he lived as an alien in the land of promise, as in a foreign land, dwelling in tents with Isaac and Jacob, fellow heirs of the same promise; for he was looking for the city which has foundations,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By faith even Sarah herself received ability to conceive, even beyond the proper time of life, since she considered Him faithful who had promised. Therefore, also, there was born of one man, and him as good as dead at that, as many descendants as the stars of heaven in number, and innumerable as the sand which is by the seashore." Abraham trusted God for the things yet to come.

Jesus calls us,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Today is the day of faith. Look at Mary Magdalene. She was as lost as one can be, with seven demons, but she came to Jesus and received faith, hope, and love. On that first resurrection day, she received freedom. She was the first to witness God's wonderful secret, and the first to proclaim the wonderful news. If you believe in Jesus, you will receive faith, hope, and love. He will change your limited life to an eternal life in His kingdom. Amen. 🙏

다을 주일 설교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¹⁰⁰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¹⁰¹ 그들은 예수의 삶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9~11)



김성필 목사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에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9절).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의 대화 중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답오니어 하니(이는 선생님이리라)(요 20:15,16). 예수님을 만난 후,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10절).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한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11절).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마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인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요 15:40).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마리아는 계속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마 15:47).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 그녀는 예수님 몸에 바를 향품을 사 두었습니다(마 16:1). 예수님의 몸이 무덤 안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도 마리아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깊은 충절과 진정한 사랑은 그녀의 모든 행동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일곱 귀신 들린 그녀를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진실이었습니다. 또한 마리아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사건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그 어떠한 사건도 부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적, 물리적, 공간적으로 이 땅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제한된 환경을 무한하고 끝이 없는 영원한 것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부활이아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또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멸하시고 우한한 인생에 영원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부활의 증인이었던 마리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던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먼저 보았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인간의 선과 의지로는 생기기 않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에 따라 변하는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 소망, 사랑은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부활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

요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정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하늘과 땅에 관한 것이며, 유한에서 무한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없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눅 18:17).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즉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자신의 자존심이나 의지를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신 구제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코 표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부활절 기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레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금요일은 단지 불행한 날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죽음을 대신하신 온총의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죽음과 삶에 관해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 위에서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자에게 줄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의 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믿음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믿음을 뜨겁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당신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이브라함은 믿음에 따라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약속하신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집이 아닌 장막에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8-12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이브라함은 자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버렸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어 단산하였으나 기대하는 일을 믿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없이라 이르되 그는 자와 방황한 한 사람에게로 말미암아 하늘에 떠날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브라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오늘은 믿음의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일곱 귀신 들렸던 자,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았던 정말 소외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왔고 믿음, 소망, 사랑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날 그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자 그 놀라운 소식을 선포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 소망,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께의 영원한 생명을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아멘.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눅 18:14)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당대의 완전한 신앙인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행동과 본을 보였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감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눅 18:11). 그는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하였다. 반면에 세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죄인이었다. 그래서 세리는 기도할 때에도 성전 한 모퉁이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18:13).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눅 18:14).

의롭다 하심이 무엇일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에게 의롭다고 하셨다. ‘의롭다’는 것은 전체를 향한 말씀이 아니다. 개인을 향한 말씀이다. 각자가 어떤 양 생행위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의로움의 기준은 믿음이다(롬 4:22). 자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 자신의 노력, 열심, 공로를 통한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앞에 ‘의롭다’ 함을 입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진실로 회개해야 한다. 십자가 앞에 자신의 전부를 내려 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믿음의 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 놓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롬 5:1).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은총이다.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교회 일을 많이 해야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롬 4:5). 따라서 자신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이럴 때 의식에 빠지게 된다. 의식은 인간을 속이는 교만이다.

교만한 마음은 은총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이 은총의 비밀이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은총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4:11).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가(마 23:5-7) 결국 이를 통해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며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이러한 죄를 지적하셨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라고 말씀하셨다(마 23:12). 즉 교만이 아닌

겸손을 말씀하신 것이다(잠 29:23). 그러나 이 겸손은 단순히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겸손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겸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은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다. 물론 사람을 위한 겸손도 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세상 권세자, 부자들이 아닌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신들과 함께하셨다(눅 14:13,14). 수가성 여인, 베데스다 못 가의 병자,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가셨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들어가기 전에 예리고성에 가서 소경 바디매오를 만나 주셨다. 음성을 받은 바디매오는 예루살렘에서 임상하는 ‘호산나’ 찬양의 지휘자가 되었다(눅 18:42,43). 계속해서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도 만나 주셨다(눅 19장).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만나 주셨다. 또한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눅 15:7,10). 이처럼 그리스도의 겸손은 겉사람에 통상하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 절정을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죽을 앞에서도 겸손히 모든 일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다(눅 22:42). 진실로 겸손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다. 십자가 앞에서 오직 은총만을 고백하게 된다. 높아지고자 말라!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결국 은총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교만에 지며 결국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한다(마 23:8-10).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자. 오직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사람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 겸손을 높이는 자는 참 신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다. 바로 “믿음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참 신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자기를 높이는 자는 교만하여서 십자가를 통한 은총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르지도 못한다. “믿음의 주요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히 12:2).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 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이기 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 주소서 많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찬 421장). 매일 진심으로 회개하여 자기를 낮추며 그리스도 말미암은 은총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령한 찬양, 임마누엘 찬양대



임창식(장로, 임마누엘 찬양대장)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함이니라”(사 43:21). 성도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은 우리를 마음껏 자신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파와 주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며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나오는 봉회의 기도(시 51:17)와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고, 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늘 자신을 부인하며 회개하며, 찬양드리는 가사와 연주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는 매 주일 2부 예배(오전 9시)를 섬기고 있는 찬양대입니다. 다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다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향한 하나의 믿음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원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살아 있기에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는 연습이지만 모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

다. 특히 감사하는 이들이 많은 신앙인이 아니라 실현하는 신앙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60여 명의 대원들이 삶 속에서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포함해서 매월 한 번씩 모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에서는 복음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서 교회와 대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여 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각자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헌신적인 기도와 간구로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선곡되는 찬양곡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가운데 그 가사와 곡에 담긴 십자가의 은총을 되새기며 미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진정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바랄 수 없습니다.

특히 얼마 전 임마누엘 찬양대원으로 구성된 선교팀이 조직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각 교구에 속하여 이미 선교를 다녀왔거나 선교가 예정되어 있지만 모두 주저없이 동참하였습니다. 9월에 파송될 이들은 벌써부터 모든 훈련에 힘쓰며 오직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고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과 기쁨으로 나옵니다(행 16:25,26).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찬양대원들의 눈물과 헌신의 기도가 귀한 영의 찬양으로 주님께 매순간 올려질 때 성령의 은혜가 대원들을 먼저 감동시키며, 예배에 참여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총이 계속되기에 남들이 편히 쉬는 주말에 있는 연습 시간에도 대원들은 빠짐없이 나와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시 22:3).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령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죄인들을 통해 전해진 은총의 복음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선교지의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여 더욱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이전에는 나약한 죄인들이었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고이 현지에서도 주님의 은총이 역사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전하니 어린 소년과 소녀들에서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선교 기간 내내 저는 저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명이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데 있음도 깨달았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저는 믿음을 다지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입술을 가졌지만 예비된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을 천국에서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김선진(고동부 9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3월 27일(월) ~ 4월 5일(수)	16교구 5지역	김규웅
3월 27일(월) ~ 4월 5일(수)	12교구 1지역	조문수

복음의 그물을 던지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팀은 복음 전도와 의료사역을 병행하였는데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기뻐했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훨씬 컸습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모든 역사와 부족함 저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과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저희들이 준비한 것보다 몇 십 배 몇 백 배 온전히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명 한 명 영혼을 만날 때마다 눈물로 그들을 진료하면서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물려오는 사람들을 진료하는 중에 악품이 떨어졌을 때에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선교지는 복음을 받아들일 기쁨이 전혀 없어 보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곳이 바로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 할 생명의 어장임을 깨달았습니다. 죄인 중의 괴수인 저로 하여금 진료하면서 만난 50여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김종희(권사, 외선부)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4월 4일(화) ~ 4월 13일(목)	10교구 추가	이응수
4월 5일(수) ~ 4월 13일(목)	직 원(4)	이일호

새가족부를 수료하여

“예수님을 만난 후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 아들의 전도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마음에 한없는 평안이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홍수연)

- ♥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너희가 사랑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 늘 간직하여 살게요. (최문희)
- ♥ 6개월간 수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영감을 드립니다. 이제라도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말씀에 힘입어 거듭난 자가 되어 항상 깨어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윤보영)
- ♥ 아내와 결혼하면서 교화에 나가겠다고 한 약속을 25년 만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 모두 손 잡고 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박재진)
- ♥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아내 모르게 나왔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아내의 이혼을 하려고까지 마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지나갔습니다. (조종만)
- ♥ 어릴 때부터 저에게 손을 내밀었던 예수님의 손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늘 주님을 외면하던 제가 큰 어려움 중에 주님의 살아 계심과 저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믿음 반지 고주님 안에서 살며 자신을 부인하는 믿고 싶어합니다. (김혜숙)
- ♥ 남편의 핍박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다시 이곳에서 믿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던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박향숙)
- ♥ 제 자신의 의지를 꺾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과 고집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김종식)
- ♥ 예수님을 만난 후 제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리고 원합니다. (이동희)
- ♥ 처음 교회에 있을 때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평안하고 안에서만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모습도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매일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쁩니다. (김경자)
- ♥ 죄만 짓고 살았을 저를 불러 주신 주님의 뜻을 이제야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전연자)
- ♥ 남편의 병으로 농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주님을 알고 만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 믿고 살고 싶습니다. (미향애)

(정리 : 편집실)

거룩한 성을 소망하는 찬양의 하모니



원래 금요집회 시간은 말씀과 찬양의 은혜가 넘쳤지만 요즘에는 특히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모든 교구의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한 분이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느끼는 그 기쁨과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치 제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 틈에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군중들이 호산나 찬양을 부른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나 역시도 주님을 수없이 많이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그 크신 은혜에 눈물이 저절로 흐릅니다.

다. 이 은총의 주님께서 나를 위한 처소를 친히 예비하신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벅찬 감격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거룩한 성에 갇혀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기에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하는 외식자가 아니라 참 신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요 14:23) 하신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깁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마중 나오시는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점숙(집사, 11교구)

산상수훈에서 만난 예수님

사순절 기간 4복음서를 읽는 중에 산상수훈이란 부분에서 긴 목상을 하게 된 것은 단순히 익숙한 구절이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처음에 이 구절을 접했을 때 감동할 부름이 느껴졌다. '단정 가난한 마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열쇠라니...' 처음에는 의아했었고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곧 빛과 소금된 삶에 대한 말씀은 내 영혼이 더 이상 더러움과 죄에 빠져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고 지금까지 나의 어그리진 정체성을 철저히 부처놓았다. 그렇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순하고 강렬한 삶의 양식을 말해 주고 있었다. 천국인의 삶, 주님 자녀의 삶이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삶의 기쁨들이 녹아져 있었다. 분노가 없고 간음도 없고 거짓 맹세도 보복도 원수도 없는 삶이었다. 늘 웃기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세상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조화는 상상한 것 이상의 평안을 나에게 주었다.

나의 죄는 보지 않고 교만과 자기 기만, 자기 배신으로 결국 다른 사람들을 맞고 업신여기고 학대하는 때까지 서슴지 않게 되는 삶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의 말씀은 굳건한 반석으로 다가왔다. 주님께서는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를 도우라는 권고를 하셨다.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인색하고 이기적인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실제의 삶에선 전혀 실천하지 않음을 깨닫고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눈과 심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승리로 기쁨과 소망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 세상 나의 괴를 뜨겁게 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낫은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은총 안에서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로 통행하며 부활의 영광과 주님의 날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실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다리는 삶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길 오늘도 기도한다.

황정연(청년 1부)

버리고 믿으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는 저의 내태한 신앙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집이 교회와 떨어져 새벽에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순종하니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옛 사고 방식과 옛 생활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겉으로 볼 때 저는 문제 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철저히 '복음 중심적인 신앙 생활'이 아니라 '내 복음 중심적인 신앙 생활'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믿으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맡겨 주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오재일(만수집사, 9교구)

순종의 길

가네 가네 고난의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순종의 길
아버지께 영광의 길

누구든지 가라시네
아무든지 못가는 길
자기를 부인하라네
바뀐 삶을 살라시네

짧은 인생 여정길에
주여 주여 번민 놓고
나여 나여 자량하고
부활 주님 부끄러워

씩어지는 세앗만이
많은 열매 거두는 길
입으로만 조아렸나
순종 열매 자기 부인

반연숙(권사, 3교구)

교회탐방 정수일 집사 가정(6교구)

고난 중에 만난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그리고 이 대속의 은사를 믿는 신자들이 행해서 예수님은 고난이 있을거라 말씀하셨다.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가정들 만나보자.

놀라운 일을 겪었다면요?

작년 12월 15일, 단순한 질병이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육종암(암종 사이코마)이라는 희귀 질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어 전이된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 세 군데의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았지만 역시 90% 이상이 같

은 병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수일 집사)

남편의 병은 혈관 쪽에 위치하여 혈류를 타고 전이되는 병입니다. (안정의 집사)

육종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제 병은 세 음절로 표현하면 "죽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했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했지요. 원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지기 훈련에 가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정수일 집사)

아편 일인저 주님께서 1년 전부터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병을 진단받고 "이것이구나" 하는 차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감수하기도 병을 알고 적극적으로 무릎 꿇으셨습니다. (안정의 집사)

수술 결과가 예상 밖이었다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의사들은 "복사 상태지만 수술이나 한 번 해 보자"라는 심정으로 수술을 시도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0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두 시간 만에 끝났고 종양은 100% 제거되었습니다. 주님이 수술 과정에서 병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수술을 집안 의사와도 둘러서 수술 후, 아내에게 와서 수술이 성공적이

었다고 알려 줄 정도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승리였습니다. (정수일 집사)

가족들은 치료 기간 중에 무엇을 기도하셨나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었기에 큰 염려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가정이 재사장으로 세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안정의 집사)

저는 아빠가 금요집회에 참석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정영, 유년부)

이제 아빠가 거꾸꾸우 금요집회에 나오세요.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오시게 해 달라고 기도해요. (정조은, 유년부)

제가 병실을 지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이 저를 돌리러 애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동안 늘 은혜의 장소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던 것이 헛되지 않았나 봅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안정의 집사)

엄마도 간 계신데 어떻게 애를 드셨나요?

제가 평소에 엄마가 하시는 것처럼 애를 인도했어요. 사도신경으로 애를 시작해서 성경을 읽고 찬송가 337장 찬송을 불렀어요. (정영)

"아름게 기도"(통성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조은)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안정의 집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아 본 적도 없고 핍박 받은 적도 없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정수일 집사)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온종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안정의 집사)

지금도 고난 중에 있으면서 이 글을 읽을 성도들께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 현혹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나라를 소망하면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수일 집사)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사를 깨닫는 이들의 열매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든든하다. 또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서는 부모를 위해서 부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의 가정 많아지기를 소망한다.

(편집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141장 원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롬 8:17)의 말씀 같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 는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성도의 고난은 당연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중의 고난일 것입니다. **원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별에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내 지은 죄 다시 지고 또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웬인가 그 사랑 크시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지! 예수님 앞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양 손과 발에 다투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해 되었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의 삶이 고달프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그리고 찬양 후 주시는 십자가의 은사는 저를 또 다시 찬양케 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감을 줄 알 아물 배에 드릴 것 없어 이물 바칩니다** 아멘

현우원(집사, 가브리엘 찬양대)

♡ 새 · 가 · 족 · 을 · 한 · 영 · 합 · 나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1084	홍지희	19 외선부	이준석(1)	1111	김준배	1 청년2부	유복성(2)	1138	홍복희	19 외선부	
1085	이윤식	18 청년2부	구영철(18)	1112	구보성	19 청년1부	구영철(15)	1139	최수미	19 외선부	반병희(18)
1086	이정호	19 청년1부	최세진(1)	1113	김영선	17 청년1부	박경원(18)	1140	나종래	19 외선부	유미도(19)
1087	정성희	8 청년2부	오준범(1)	1114	이 찬	10 청년2부	문정환(11)	1141	리과리	19 외선부	소필준(11)
1088	임상훈	15 청년2부	박영주(13)	1115	신준분	15 소양부	최재호(15)	1142	이태	19 외선부	신소윤(12)
1089	강경희	15 청년2부	신민숙(1)	1116	송준	8 소양부	박영주(18)	1143	노은	19 외선부	이종현(11)
1090	정규영	18 청년2부	박경원(18)	1117	박지성	15 청년1부	서희정(18)	1144	발레라	19 외선부	글노제(19)
1091	이희원	19 대학부	이소규(18)	1118	조성호	10 소양2부	김정희(2)	1145	박은진	6 고등부	서우연(18)
1092	김준호	8 청년2부	강영재(18)	1119	이현수	2 청년2부	김영주(2)	1146	김성명	19 청년1부	최옥진(18)
1093	정성호	19 청년2부	서희원(18)	1120	김진규	19 청년1부	이종현(18)	1147	신화진	19 대학부	이종호(18)
1094	김환기	1 청년2부	박경원(14)	1121	김정희	19 청년1부	한민기(18)	1148	박승규	11 에베다부	이계영(18)
1095	김진지	1 청년1부		1122	이종경	1 소양부	김정희(2)	1149	이원미	19 청년1부	
1096	임성광	19 청년2부		1123	배대은	19 중등3부	황원자(18)	1150	박익용	1 청년1부	
1097	송왕실	5 청년2부		1124	장정희	1 청년1부		1151	송규진	9 청년1부	김정희(18)
1098	최성진	19 대학부	왕희옥(18)	1125	김진철	19 대학부	이규옥(3)	1152	라다순	19 외선부	전일수(13)
1099	변영희	9 청년1부	김소선(18)	1126	하	19 외선부	오정희(18)	1153	서영재	19 외선부	박희숙(13)
1100	이만수	19 대학부		1127	홍순희	19 외선부	너희예배(19)	1154	대영재	19 외선부	정종국(13)
1101	김 진	19 대학부		1128	임태희	19 외선부	너희예배(19)	1155	이비기	19 외선부	조재민(10)
1102	이백규	19 청년1부	백애순(5)	1129	홍기	19 외선부	다영예배(19)	1156	비관하	19 외선부	조재민(10)
1103	이규근	4 청년1부	김소자(3)	1130	이호표	19 외선부	김영희(18)	1157	홍지수	9 고등부	조재민(10)
1104	구경희	8 청년2부	박영숙(18)	1131	이서진	19 외선부	다영예배(19)	1158	박보람	6 청년2부	이진규(18)
1105	임용진	19 대학부	김진숙(18)	1132	김진희	19 외선부	다영예배(19)	1159	이민경	19 대학부	김정희(18)
1106	박재훈	10 청년2부	박영숙(18)	1133	김진희	19 외선부	다영예배(19)	1160	고은경	19 대학부	정영희(18)
1107	이성규	18 청년2부	이영기(18)	1134	비관하	19 외선부	정영희(18)	1161	김혜미	19 청년1부	김옥희(18)
1108	이민숙	18 청년2부	이영기(18)	1135	이호표	19 외선부	박영숙(18)	1162	전혜미	19 외선부	
1109	권만준	11 청년2부	한영희(18)	1136	여옥순	19 외선부	심순옥(18)	1163	김민정	19 청년1부	
1110	김재만	19 청년1부	김준지(1)	1137	김두하	19 외선부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교 회 소 식

별 세

1. 정한나 성도(양영주 타교집사·권자 타교 집사의 딸, 19교구 상남구역) / 3월 30일 별 세, 4월 1일 장례
2. 최정순 권사(유언에 집사·유지환 집사의 모친, 아나운 성도의 장모, 황현주 집사의 시

- 모, 16교구 호계구역) / 4월 별세, 6일 장례
3. 임용삼 집사(유언에 권사의 남편, 임현진 성도의 부친, 이종현 집사의 장인, 7교구 천호1구역) / 4월 별세, 6일 장례
4. 반순동 타교성도(황선용 집사의 장모, 안경자 권사의 모친, 1교구 목양3구역) / 4월 별세, 6일 장례

2006년 제5차 CMTC 훈련 - 둘째주 (갈릴리움)

구 분	4월 9일(오늘)
제1강(18:10-18:50)	선교 현장의 영적 상황
제2강(19:00-19:40)	2005년도 선교사 서역 경험 및 개선 사항

충헌복지관 직원 모집

모집분야: 정신치료 상담(중간) 교육
자 격: 세례 교인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성인 정신장애인 또는 노인편안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제출서류: 자기소개서·주민등록 등본·자기 소개서
접 수 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6-1 충헌교회 사무국 ☎ 552-8200(내선 403번)
마 감 일: 2006년 4월 14일(금)까지

사회복지법인 충헌복지재단

교회직원 모집

1. 모집 부문: 경비직(약간) 충헌(도인) 주빙(여) - 만60세 이하 세례 교인
2. 자 격: 자필 이력서·주민등록 등본
3. 제출 서류: 당회장 추천서(태고인)
4. 서류제출처: 강남구 역삼동 666-1 사무국 ☎ 552-8200(내선 403)

◆ 예배 오케스트라 편곡자 모집

지역단: 작곡 전공자로서 오케스트라 편곡을 할 수 있는 자
문 의: 찬양위원회(본당 113호)

◆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

일 시: 4월 2일(주일)~9월 30일(토)
매주 토요일 15:00~17:00
장 소: 장로 피택자(선교관 5층 회의실)
안수집사 피택자(본당 112호)
권사 피택자(베다니홀)

2006년도 제2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 짜	시 간	학 과	장 소	세례, 개종자, 입교자	장 소	유아세례자	장 소
4월 9일 (오늘)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최종철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정종선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40	기독교론 (이정진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강 훈 목사)	교육관 304호		
4월 16일 (다음 주일)	1교시 15:00~15:50	교과개요 (김준호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론? (정성영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 세례론? (안지현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 답	교과별 장소	문 답	교과별 장소	유 아 세례식 (오호 3차, 갈릴리움) 오호 2차 30분까지 입장바람	
4월 23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찬양예배, 분당) 오호 4차 30분까지 입장바람					

이번 주(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담당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이정우	정현민/김택서	류병희/오순도	정진호/이복철	여국근/이상석	김용덕/김정희
						최종철/이복순

예배담당 안내 (4/12~4/16)

날짜	예 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4/12	수요 I	달고 오고 그 말뿐 (호산나 찬양대)	이창수 전현진	누군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로 8:51-58) 김성관 목사
4/12	수요 II	세상 죄 지고 가는 (실로암 찬양대)	최종철 김영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본받자 (골 6:5) 고광환 목사
4/14	금요일회	연합 찬양대	여국근 이 훈	김성관 목사
4/16	주일 I	『예배 찬양』	이정훈 김규식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막 16:9-11) 김성훈 목사
4/16	주일 II	거기 나 있었는가 외 / 바울로 전 장원회(전일 연주자)	안지현 신신진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막 16:9-11) 류병희 목사
4/16	주일 III	하루에 찬양이 들리면 그 날 / 금관주(합창부 외 오케스트라)	정현민 김진국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막 16:9-11) 김성관 목사
4/16	주일 IV	구주와 함께 나 있었으니 외 / 바울로 전 장원회(전일 연주자)	이종대 김영은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막 16:9-11) 이세영 목사
4/16	주일 V	졸업다 외 날 외 / 변영 이영준장단(기도: 최용준)	윤수인 김준성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막 16:9-11) 김성관 목사
4/16	주일찬양	임바누엘·실로암 연합찬양대	나광영 노영환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골 3:15-22) 고광환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제배)	본 당
	IV 오후 1:00(국악 동시통역 제배)	본 당
	V 오후 5: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일회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 당

기도회 집회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최종철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김요한회	저녁 11:00	금요일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도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 예배는 소리 합창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열립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지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방 부	오후 12:15	각 빌 리 홀
사 망 부	오후 12:15	목지관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국악) 오후 1:00(성악)	제2교육관 1층
타 아 부	(화) 오전 8:30~9:40 (토) 저녁 7:00~제9교구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 다 니 홀
송가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헌복지관
국내외국민선교부	오전 11:00	아 려 홀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위임목사	■ 부목사
김의철 김준호 노광현 이병학 이 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남진우 김준수 최무길 이종호 차신철	여국근 안건환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여국근 안건환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김광남 이종식 임무원 김용호 권훈철	고광환 이만경 김익환 장 훈 임현덕	고광환 이만경 김익환 장 훈 임현덕
이정우 김단용 한승규 김명수 김기환	이희식 최희철 하종철 안지현 장준성	이희식 최희철 하종철 안지현 장준성
한용철 이희수 안현환 황리만 김구형	양승용 이경진 조규호 최성규 이세영	양승용 이경진 조규호 최성규 이세영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이정준 이상주 김준호 윤수인 황진섭	이정준 이상주 김준호 윤수인 황진섭
박종규 권완호 조종환 배승진 김영달	정성영 이경준 김태석 김성준	정성영 이경준 김태석 김성준
이성호 최지환 노영환 박진규 정정길	■ 어전도사	■ 어전도사
신상수 고재승 강현철 김영준 이달용	신동자 윤운선 한영준 김진덕 홍순애	신동자 윤운선 한영준 김진덕 홍순애
장철원 김승곤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이국주 김갑자 안태순 김경민 강덕필	이국주 김갑자 안태순 김경민 강덕필
안진원 김진덕 김창국 김준성 임창식	최문실 전은희 김성준 김경자 김경희	최문실 전은희 김성준 김경자 김경희
김은철 전진태 김진국 전계식 김광문	이복순A 유근희 한성일 임태두 강경미	이복순A 유근희 한성일 임태두 강경미
장승규 전진태 석영식 구재환 송두섭	유미자 이복순B 강오숙	유미자 이복순B 강오숙
최자용 신진길 유상태 박상선 김규석	■ 찬양감독 김영구	■ 찬양감독 김영구
신광철	■ 전임지파지 서준성 김원섭	■ 전임지파지 서준성 김원섭
	■ 전임목장지 김소연	■ 전임목장지 김소연
	■ 전임주무지 장영희	■ 전임주무지 장영희
	■ 전 교 사 송요한	■ 전 교 사 송요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일 시 : 4월 10일(월) - 4월 14일(금)
(새벽 4시 50분부터 찬양 시작)
장 소 : 금요일회 장소와 동일
(단 8교구는 19교구 좌석으로)

*시운 미저와 주권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성경이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구으로 금요일회(갈릴리움)를 가행 예정에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